

**유리 불교 미술 연구원**  
 불화·단청·조각·불교 건축 전문  
 원장 김영식  
 T. 931-2287(화선), 936-0069(전서관)

# 현대불교

**국민은행**  
 국민은행  
 02-23-4000

명예회장 노대형/발행인 권진업/편집장 김광삼/논설고문 고은/편집국장 최정희/인쇄인 김규식/등록번호 다-3379/©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대표전화 737-8881/편집국 722-4162 FAX 737-0698/광고국 737-0692/구독신청 737-0691  
 구독료: 월 4천원 1년 4만원  
 불기 2540년(서기 1996년) 10월 9일 수요일(주간) THE HYUNDAE BULKYO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 이렇게 들었다

어질고 지혜로운 왕의 상징인 세종대왕은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에 가장 절실한 것으로 말과 생각을 표현하는 우리 글을 꼽았다. 그래서 550년전 배움이 부족한 백성이 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한글을 제정 반포했고, 비로소 우리는 지랑스럽고 편리하며 소중한 우리 글을 갖게 됐다. 글은 말과 짜이어 그 사람의 생각을 담아내는 그릇과도 같다. 말과 글을 통해 인류는 문명을 빛나게 발전시켰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다. 정력을 이루신 후 부처님은 침묵과 설법의 두 길에 길에서 혼연히 후자를 택하셨다. 이처럼 글이 있어 더욱 유익해진 말. 그러나 한글날을 맞아, 말을 하지 않아서 후회하는 일보다는 말을 했기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도 돌아볼 일이다. (관지자 주)

정정되지 않거나 뜻이 없거나 이익되지 않는 것 말하지 않고, 언제나 부드러운 말 그다로 쓰면 이는 곧 하늘이 내는 길이다. (집합심선경)

### 착한 말과 악한 말

추한 말을 멀리 여의라. 추한 말은 자기도 해롭고 남도 해를 입히므로 피차 다 해로운 것이다. 그러나 착한 말을 딱히 익히면, 자기도 이롭고 남도 이로우니 피차 다 이로운 것이다. (무량수경)

사람이 세상에 일으키는 재앙은 입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마땅히 입 지키기를 사내운 불을 지키는 것보다도 더욱 조심해서 해야 한다. 맹화(猛火)는 능히 일세(一世)를 태우나 구입은 무수세(無數世)를 태운다. (보은경)

온갖 맛있는 음식 중에서 진실한 말이 으뜸이다. (별력집합심경)

사랑스럽고 빛이 고을 자라도 향기 없는 꽃이 있는 것처럼 살인이 따르지 않는 사랑의 말은 번드르르할지라도 그 알맹이가 없다. (법구경)

말하는 내용이 지성(至誠)이어야 하며, 말이 진실하며, 전하는 바가 도리에 맞으며, 말이 시기에 적절해야 한다. 꿈 속에서라도 도(道)에 벗어나는 일을 말하지 않고 늘 바른 가르침의 경전을 설해야 한다. (점수일체지덕경)

사람은 태어날 때 그 입 안에 도끼를 가지고 나온다. 어리석은 자는 말을 한부로 함으로써 그 도끼로 자신을 찌고 만다. (숫타니파타)

스스로 거짓말하는 것과 남에게 거짓말하는 것과 남을 거짓말하게 하는 것과 방편으로 거짓말하는 것은 보살의 비라이피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장경)

참다운 뜻은 참다운 말을 많이 들음으로써 얻게 된다. 많이 듣는다는 것은 뜻을 잘 알라는 것이요, 말을 잘 하라는 것은 아니다. (방동경)

관련기사 2·3면

한글날 특집 불경 의식 한글화 2·3면

'불교와 도시문화' 학술회의 13면

구독료납부 은행지부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 강원지역 사찰

# 공비침투로 '불사차질'

법왕사 천불이운·월정사 보살계등 대책고심  
 락가사 '7천만 민족화합 기원법회' 축소될 듯  
 출입통제 참배객 발길 '뚝'

동해안 무장공비 침투여파로 강원지역 사찰의 참배객 발길이 끊겨 사찰마다 계획중인 불사 및 각종행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9월18일 무장공비가 타고온 잠수함이 발견된 강릉 락가사(주지 청우)는 오는 23일 남북7천만 민족화합을 기원하는 보살계 및 사리진경법회를 병행할 계획이었으나 동창자가 적어 행사를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공비소탕작전이 계속되고있는 철성산 소재 법왕사(주지 지혜)도 26일 천불이운을 새로 마련하고 천불이운식을 병행할 예정이지만 민간인의 출입이 통제되고있어 하루빨리 사태가 마무리되기를 기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밖에도 16일 조계종 4교구 본사 월정사(주지 현해) 보살계, 24일 명주 보현사(주지 도원) 누각 상량식 및 만등불사, 25일 양양 동해사(주지 의문) 관로법비 만등불사 등의 행사도 상황은 마찬가지로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월정사 총무 원행스님은 "공비소탕작전으로 통행금지과 일부 등산로가 통제되는 불편은 있지만 생활활동에는 전혀 어려움이 없다"며 "사찰마다 마땅히 불사에 불자들의 계속적

인 동참과 생활활동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히 단풍철을 맞아 년중 최대의 참배객과 관광객이 몰리는 강원지역은 사찰경제에도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 양양 낙산사(주지 지홍)의 경우 예년같으면 하루 3~4천여 명이 관음도량을 찾았으나 요즘은 하루 1~2백명이 고작으로 경내가 한적하다. 더구나 국내 최대의 기도처로 알려진 설악산 봉정암과 오세암은 입산이 통제되어 기도객과 등산객들을 안타깝게 하고있다.



윤리선언 채택  
 통일관북민족회의(공동의장 원주스님)소속 불교 유교 원불교 천주교 기독교 등 5백여명의 각 종교인사들은 지난 3일 개천절을 맞아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실에서 도덕성 회복과 윤리제고운동을 골자로하는 윤리선언을 채택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국민연립개혁으로 지역갈등과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혼란스런 사회분위기를 일신해 오려는 2002년까지 민족의 숙원인 통일기반을 조성키로 결의했다.

## 경부고속철 경주의곽 통과 검토

건교부 11월말 공청회 거쳐 노선 확정

경부고속철도 경주노선이 경주의곽지역을 통과하는 쪽으로 검토되고 있다. 건설교통부가 교통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검토하고 있는 노선은 문체부가 제안한 건천~화천노선보다 경주의곽으로 10Km 이상 벗어난 산내면을 통과하는 6개 노선이며, 역사 위치는 경주 울산 포항을 잇는 지역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지금까지

문 6개 노선에 대해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으며, 곧 문화재 조사를 실시키로 했다. 교통개발연구원은 이를 바탕으로 11월말경 공청회를 거쳐 최종노선을 건교부에 제출할 예정이다.

## 문화재관리국 승격 추진

문화체육부가 내년 '문화유산의 해'를 맞아 문화재관리국을 차관급의 형으로 승격시키는 방

안에 밝혀졌다. 이날 김장관은 "국가지정 문화재의 심의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문화유산의 해'인 97년중 문화재관리국의 청송격을 본격 추진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문화재관리국의 청송 격은의는 문화재관리행정의 근원적인 개선을 위해 3년여전부터 매년 거론해 왔다. 한편 현재 문화재관리국 규모는 금년예산 9백84억원으로 일반전문의 2백52명 기능직 3백51명이 지정문화재 6천여건과 20만여점으로 추산되는 비지정문화재를 관리하고 있다.

## 불자 인터넷교육 무료 실시

10월 12일까지 150명 선착순 접수

본사는 정보화시대를 맞아 불교계의 전산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보수집, 정보공유의 능력 배양, 전산화 마인드 고취를 위한 인터넷 무료 교육을 실시합니다. 정보사회를 따라 잡는 지혜로운 불자 여러분의 동참을 기다립니다.

- ◇교육대상
  - 스님, 불교계 업무 종사자 및 일반불자
  - ◇모집인원 150명
  - 선착순(서울지역 90명, 부산·광주 각 30명)
  - 교육은 5회(서울 3회, 부산·광주 각1회), 1회당 30명씩 배정.
  - ◇교육일정 및 장소
  - 96년 10월12일까지 선착순
  - 96년 10월17~12월 17일
  - 상보컴퓨터 교육센터
  -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338 남부대일학원 2층
- (신도림 전철역)
  - 부산: 동구 초당3동 1163-2 부산상보컴퓨터 사옥 2층
  - 광주: 북구 유동 117-13 덕성B/D 3층
  - ◇교육내용
  - windows 기본
  - 통신사용 방법 (E-Mail 중심)
  - 인터넷 사용법 활용 (특정과제 수행능력 향상)
  - ◇교육비 무료
  - 문의: 본사 전략정보팀 (02)737-8881
  - 협찬: 상보컴퓨터

## 본사 '서울시청 공공DB 사업' 낙찰

본사는 서울시가 실시한 '공공DB 민간관리시스템 기능확대' 개발 용역 공개입찰에서 지난 1일 최종 낙찰받았습니다. 이로써 본사는 서울시가 시민들에게 공공정보를 제공하고 시장 참여의 기회를 넓히도록 지체서버를 구축하는 과업을 맡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10월 26-27일 무욕도 간월암 참배"

## 고은소설 '수미산' 현장 기행

'현대불교'의 인기연재 소설 '수미산'은 서해의 작은섬 무욕도를 무대로 우주를 넘나들며 불교의 세계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수미산'의 성지 무욕도는 어디일까. '현대불교'는 작가 고은 선생, 조항숙 화백과 함께 보름달이 뜨는날 무욕도의 배경이던 만공선사가 주석했던 서산 간월암 기행을 떠납니다. 이튿날 선종 본사 수덕사를 참배하고 방장스님도 친견합니다.

- ◇일시: 1996년 10월 26일(토) 오후 9월 보름)~27일(일) (1박 2일)
- ◇일정
- 26일: 간월암(1박)-고은 선생님 특강(월야정진도 가능)
- 27일: 수덕사-방장 원당 스님 친견 (주지 법장스님 인사말씀, 고은선생님 특강)
- ◇집결지
- 서울: 10월 26일 오후 4시
- 조계사(관광버스 대기)
- 부산: 10월 26일 오후 1시 부산시민회관(관광버스 대기)
- ◇참가비: 1인 4만원 (은행 온라인 계좌=국민은행 023-25-0007-617, 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 문의: 현대불교신문사 편집국 (02)722-4162 부산지사 (051)634-5114 ■시간을 지켜주세요.

현대불교신문사

HALLA 지역환경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기업 한라



#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世上을 만들겠습니다

푸른 하늘, 맑은 물, 깨끗한 공기—  
 漢拏는 人間과 自然이 調和를 이루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 소중한 環境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한라는 自然環境보호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한라의 모든 사업장에 완벽한 공해방지시설을 갖춰 '綠色經營'을 펼치고 있습니다.

